억대소득 농민과 농민데모

노 영 한
(본회 전무이사)

>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8%라고 하는데, 모든 농정은 72%는 쉽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이번 중국에서 변질된 식용쌀 수입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
> 식용쌀 수입은 수입 자체보다도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에 신규 투자를 두려워 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망설이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개속에 가리워져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한가위 추석절이 있다. 더도 덜도 말고 추석만 같으라는 우리 조상들의 바램을 보아도 추석이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임에 틀림없다. 전인구의 절반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추석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언덕이 되어 기대게 되기 때문이다.

불황이 상당히 심각하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대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최근 TV, 신문을 통해 연간 소득이 억대를 넘는 농민이 계속 소개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농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식용쌀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데모와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민이 함께 TV에 보도되니 국민들은 혼란이 오게 된다. 억대소득 농민을 소개하고 농민도 이렇게 잘 사는데 못사는 농민은 농민자

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아직도 농업계 학과가 대학에서 가장 인기없는 학과이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점차 없어지는 것도 농업의 전망이 밝지 못한 직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중에도 희망을 갖지 못하면 가장 불행하게 되는데 농축산업은 이에 종사하는 많은 농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와 종축을 항상 쉽게 수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타 산업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축산업은 생물을 기르는 산업이므로 중단없는 사료수입이 필요하다. 농장 문을 닫고 쉬었다 할 수가 없다.

문제는 이렇게 설정된 가정이 돌연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등은 우리의 정책 수립이 얼마나 위험한 가정하에 수립되고 있는가를 느끼게 한다.

WTO체제의 출범은 하루 아침에 축산물이 수입되어 몰락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8조원에 달하는데, 이의 일부를 사료화 해보자는 모임이 있었다. 매우 뜻있는 모임이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28%라고 하는데, 모든 농정은 72%는 쉽게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이번 중국에서 변질된 식용쌀 수입으로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준다.

식용쌀 수입은 수입 자체보다도 희망을 빼앗아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 많은 축산농가들이 시설에 신규 투자를 두려워 하고, 분뇨처리 시설도 망설이는 것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안개속에 가리워져 시계가 흐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희망적으로 앞을 바라보게 된다. 불과 몇 달 전만 하여도 2020년이면 우리가 GNP 세계 7대국에 진입하게 되어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진 지도국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으나, 몇 달 안되어 불황대책이 발표되고, 고임금·저효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6.25남침이 시작되자 당시 국방부장과은 "마침내 통일의 기회가 왔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되니 동요하지 말라"는 발표를 하였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믿었다가 서울에 남아 큰 곤욕을 당해야 했다.

"위기는 기회다", "적극적 공격이 최선의 수비이다",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외침이 모두 우리의 용기를 돋우는 구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고 잘 처리해도 복잡한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생산된 축산물은 마치 먹으면 암에 걸리거나 생식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충분한 검증도 없이 홍보하는 등, 축산인 죽이기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구호는 신뢰성을 잃고 오히려 축산농가에 절망만을 가져올 따름이다.

결실의 가을, 풍요로운 가을, 민족의 명절이 있는 9월을 보내면서 정기국회가 개원 중이다.

양축농가에 많은 풍성한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감사하지만, 희망을 빼버린다면 다른 많은 것을 주어도 축산농가는 허전할 뿐이다.

이번 추석 보름달은 활짝 웃는 희망을 주는 보름달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